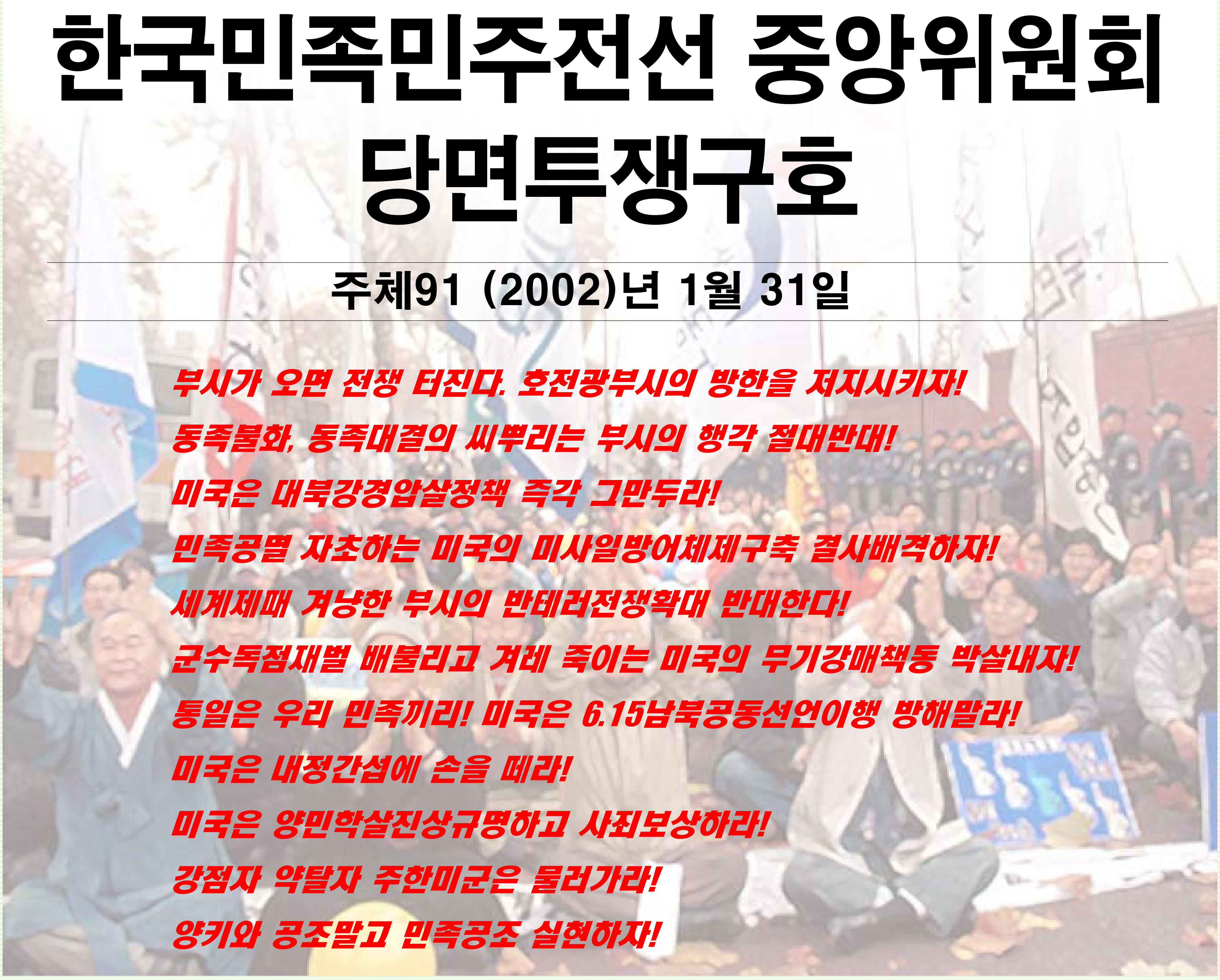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3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주체91 (2002)년 1월 31일

부시가 오면 전쟁 터진다. 호전광부시의 방한을 저지시키자!

동족불화, 동족대결의 씨뿌리는 부시의 행각 절대반대!

미국은 대북강경압살정책 즉각 그만두라!

민족공멸 자초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 결사배격하자!

세계제패 겨냥한 부시의 반테러전쟁확대 반대한다!

군수독점재벌 배불리고 겨레 죽이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 박살내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 방해말라!

미국은 내정간섭에 손을 떼라!

미국은 양민학살진상규명하고 사죄보상하라!

강점자 약탈자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양키와 공조말고 민족공조 실현하자!

당면투쟁구호

1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노작

2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

세기와 더불어

4 1장 2절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2)

칭송

6 조국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6 이 길로 가자
6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

8

한국민족민주전선

7 사대매국노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8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9 ≪주적≫론은 반북대결론
9 극우반통일세력에게 경고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7, 8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년 2월 1일
11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2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당의 영도체계의 확립

13

아리랑뉴스

13 부시방한 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
13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19일부터 21일까지
13 부시방한반대 청년학생 공동투쟁기획회의 제안
14 시민사회단체 부시 규탄 성명 잇따라
14 부시규탄,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성명서

운동강좌

15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2)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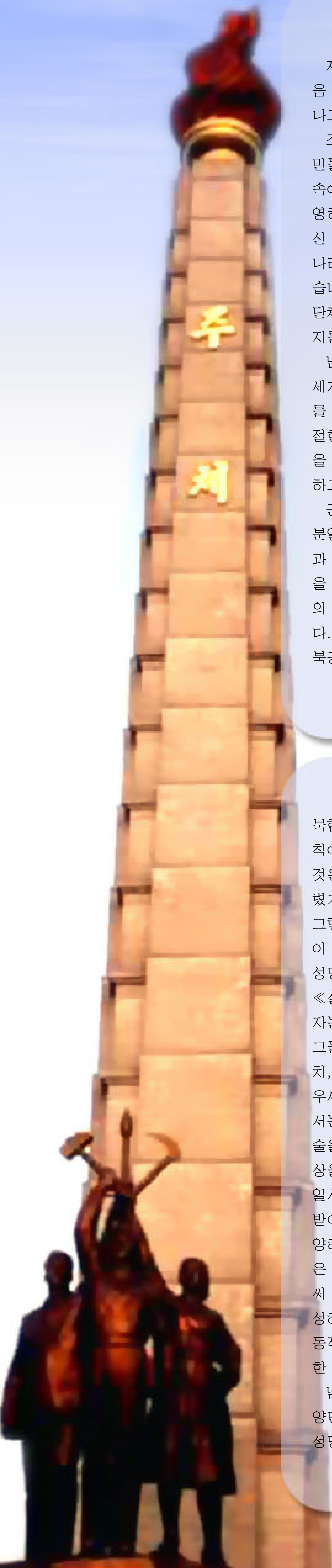
15 월간백서

조국통일3대헌장

1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

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61(1972)년 7월 14일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국내외적으로 계속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서 남북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환영하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열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들도 남북공동성명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이처럼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은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 30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은 조국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온 나라가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고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은 요즘 남조선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자마자 종이장 한 장에다 운명을 내맡길 수 없다느니,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지 않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있은 남북연락대표접촉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온당치 못한 언행에 대하여 추궁하자 남측대표는 반성한다느니, 남조선내부가 복잡하여 그러는데 양해하여달라느니 하면서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열주의자들의 입에 발린 소리를 곧이듣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의 언행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조국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서 남북공동성명자체를 뒤집어엎으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 돌아앉아서 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내용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에 옳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승공통일≫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이번에 우리의 남북협상제의에 응해 나서고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한 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들이 ≪승공통일≫야망을 버렸거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운동을 바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하고 남북공동성명에 수표한 것은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역량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우세한 조건에서 지금 당장 힘으로 대결해서는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연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와 협상을 벌여놓고 시간을 끌면서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킨 다음 미제와 일제의 도움을 받아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해보려는 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조국통일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저들의 반동적 통치체계를 더욱 강화해보려는 음흉한 목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양면전술을 쓰고 있은 조건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리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과의 어려운 투쟁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입니다.

북과 남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 그 리행을 온 민족과 세계 인민들 앞에 서약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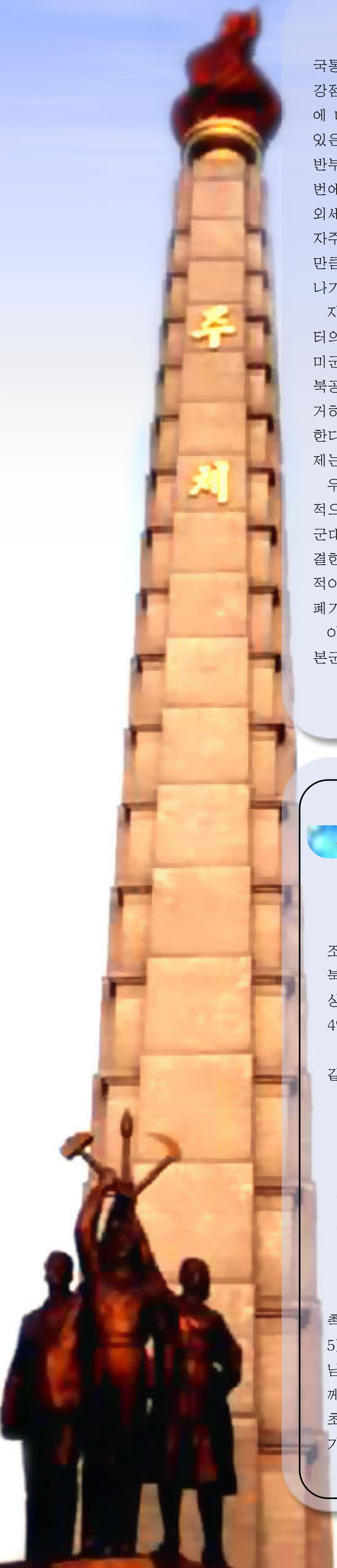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남북대화를 옳은 방향에서 이끌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본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그 의의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현상과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는가 하는 것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그들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왜곡하거나 거기에서 리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입니다.



국통일을 가로막고 있은 외세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은 미제국주의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 있은 일본군국주의세력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는데 대하여 동의한 것만큼 우리는 미군철거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기 때문에 남조선에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구실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미국과 체결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라고 들이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해나서도록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촉구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유엔은 외세로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한국≫에 있는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외세가 아니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웨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대매국노적인 외세의존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할데 대한 기본원칙을 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외세에 매달리려는 속심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으로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들고나오는 궤변의 부당성과 매국배족적 본질을 낱낱이 폭로 하여야 하며 그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왜곡하는데 대하여 엄격히 추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근원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곧 동족상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며 세계인민들의 염원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반동세력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3년동안에 걸친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며 전후시기에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킨 기초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데 대하여 선언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빈말로 되고말 것입니다.

(내일 계속 됩니다)

정치사전

남북공동성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한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확인하여 세상에 공포한 력사적인 문건.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2년 7월에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밝혀 져 있습니다.≫

1971년 11월부터 남북련락대표들의 접촉을 거쳐 혁명의 수도 평양(1972. 5. 2~5)과 서울(1972. 5. 29~6. 1)에서 마련된 남북고위급비밀회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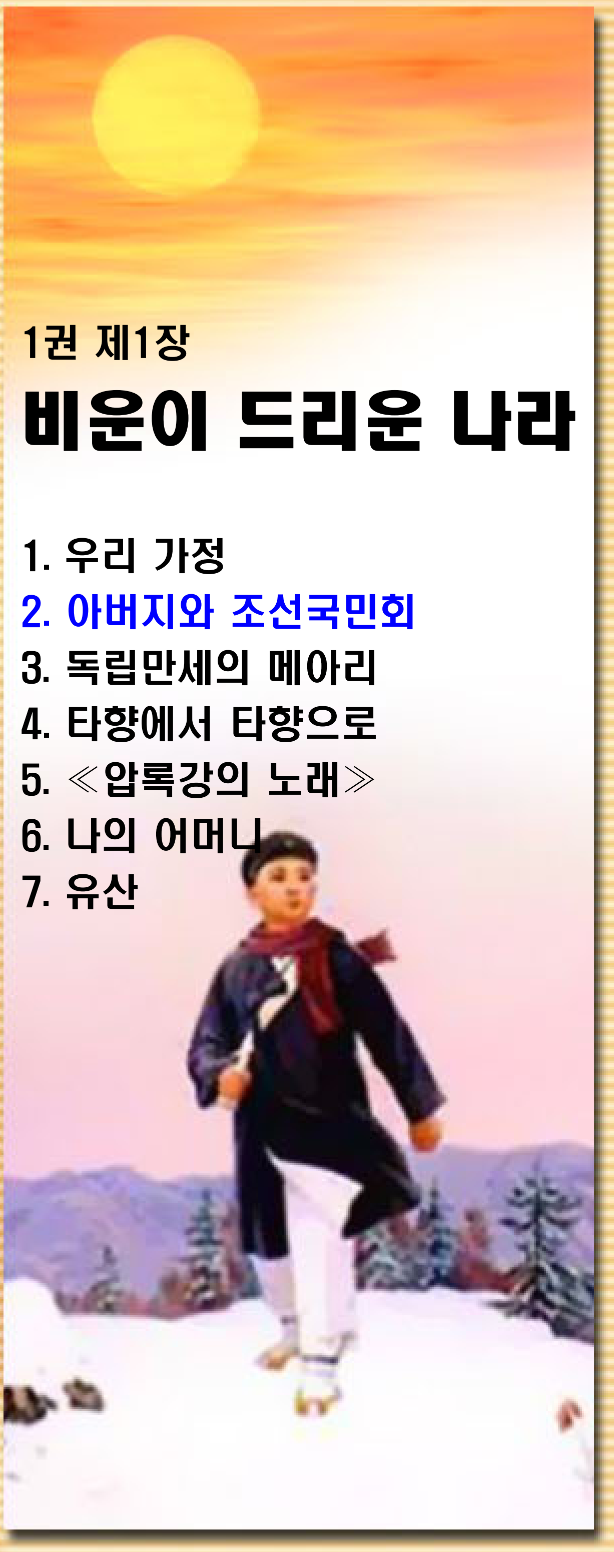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 있는 남북공동성명에는 쌍방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것과 그에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불의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할데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여 있다.

공동성명에는 이밖에도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으며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는것이 밝혀 져 있다.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4분의 1세기이상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의 분렬의 장벽에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으며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가 마련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반동들의 분렬과 대결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은 리행되지 못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들은 남북공동성명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이라느니,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하면서 합의사항들을 반대하였으며 1973년 6월에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고 꾀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공동성명발표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였다.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2)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갔다온 목적은 짐작컨데 그때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온 해외독립운동의 실태를 직접 료해하여보고 새로운 동지들을 획득하며 차후 활동방략을 세우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문제가 크게 성숙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나라들에서의 독립운동의 방식이나 방법은 아직 개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간 때는 중국혁명이 군벌의 준동과 제국주의렬강의 간섭으로 일진일퇴의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기본장애물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세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망명해있는 적지 않은 독립운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어느 대국의 힘을 빌어볼것인가 하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간도의 실태는 조선은 조선사람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간도에 갔다온 아버지는 군중계몽과 동지규합을 위해 침식을 잊고 뛰어다니었다.

이때는 우리가 만경대를 떠나 강동군 봉화리로 이사한 뒤였다. 아버지는 만경대에 계실 때처럼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중계몽사업을 하느라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나도 어느 학예회때 아버지가 써준 글을 가지고 반일연설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그때 혁명적인 시와 노래를 지어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주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봉화리로 찾아왔다. 아버지자신도 동지들을 찾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를 자주 돌아다니었다. 그 과정에 핵심들이 육성되고 군중적지반이 축성되었다.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아버지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 조선국민회에 망라된 청년투사들은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 ≪결사≫라는 혈서를 썼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1917년이라면 국내에 비밀결사가 별로 없을 때였다. 합병후 조직된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이무렵에 와서 모조리 해산되었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때여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뜻있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국내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런저런 반일단체들을 만들어내는 정도였다. 그럴 용기마저 없는 사람들은 조선경내에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었다.

이런 때에 조선국민회가 태어났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인 립장이 투철한 혁명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올것은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취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는 외부세력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준비되고 검열된 애국자들만 엄선하여 받아들였으며 종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원호상간에도 암호를 사용하였다. 비밀문서들도 암호로만 작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매해 숭실중학교 개학날을 계기로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그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써 철저히 위장되었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들을 두었으며 해외인사들과의 련계를 위하여 베이징과 단동에 통신원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 선 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에는 로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있었으며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림강, 장백, 류하, 관전, 단동, 화전, 홍경 등 외국에까지 널리 뻗어있었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아버지는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였다. 그 한 사람한 사람의 동지를 찾는데 기울인 아버지의 로고는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오동진이 황해도지방으로 가다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려 아버지를 만나고 간 일이 있다. 그날 그는 다른 때보다 별로 신수도 멀끔하고 인상도 좋아보이었다. 오동진은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고 하면서 자랑하였다.

≪공영이라고 벽동사람인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요. 식견이 높고 키가 구척인데다가 미남자요. 사람이 듬직하고 게다가 격술까지 한다니 옛날 같으면 갈데 없는 병조판서감이더란 말이요.≫

그의 말에 아버지도 기뻐하며 ≪옛날부터 인재의 공보다도 인재를 천거한 공을 더 높이 친다는데 그러고보면 이번 오선생의 벽동걸음이 우리 운동에 큰 자극을 새기였소.≫라고 말씀하였다.

오동진이 돌아간 다음 아버지는 큰삼촌을 보고 짚신 몇 컬레를 삼아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다음날로 삼촌이 삼아준 짚신을 신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한달가량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도 걸음을 많이 걸었는지 신총이 다 끊어져 너덜너덜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지친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사립문에 들어섰다. 그때 아버지는 공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와 몹시 흐뭇해하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동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도리를 배웠다.

조선국민회는 ≪한일합병≫후 여러해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아버지가 벌려온 정열적인 조직선전활동의 총화였다. 아버지가 이 조직을 통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계획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조직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국민회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은 1917년 가을이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날 경찰 세놈이 갑자기 수업중에 있는 명신학교 교실에 달려들어 무작정 아버지를 체포하였다.

아버지를 따라 맥전나루까지 갔던 허씨가 나루가에서 아버지가 몰래 한 부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뛰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지붕에 올라가 비밀문건들을 꺼낸 다음 아궁에 넣고 불을 질렀다.

아버지가 체포된 다음날부터 봉화리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학교에 모여 새벽기도를 드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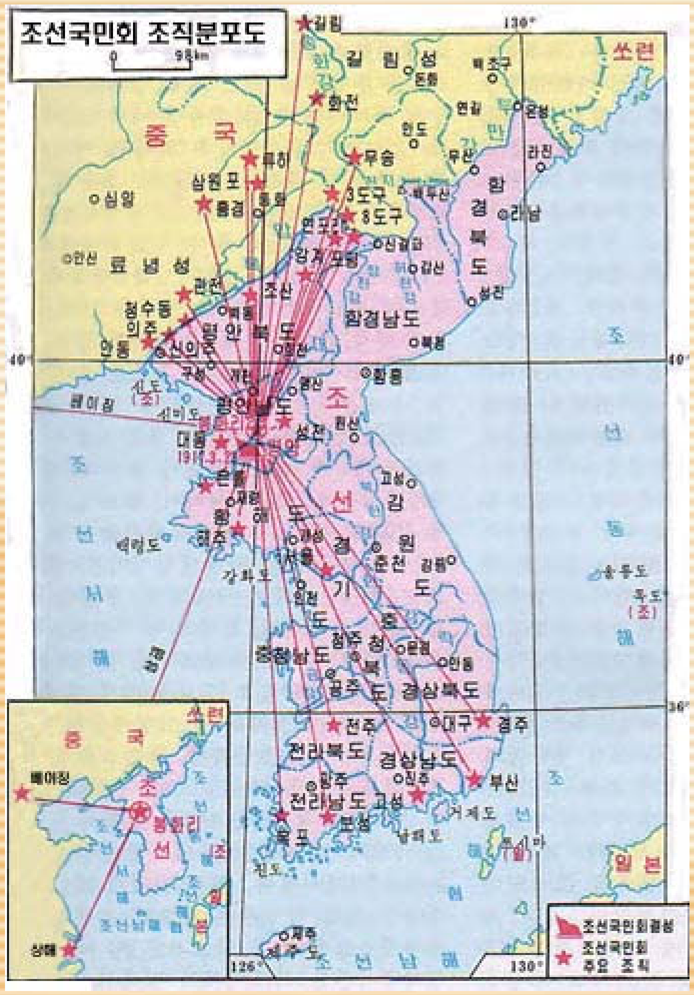
평양과 강동 일대의 인민들은 평양경찰서에 몰려가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진정서를 들이댔다.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큰삼촌을 경찰서로 보냈다. 재판을 한다는데 변호사를 사대야 할지 어째야 할지 아버지의 의향이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삼촌이 가장집물이라도 팔아서 재판할 때 변호사를 사대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단마디로 그 말을 막아버리었다.

≪변호사도 입으로 말하고 나도 입으로 말하는데 돈을 없애면서 따로 변호사를 사댈 필요는 없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변호가 필요하겠느냐!≫

일제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벌이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선사람이 제 나라를 사랑하고 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나는 당국의 그런 부당한 심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되자 재판은 날자를 끌었다. 일제는 세번째 재판에서 강제로 형을 언도하였다.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 형록삼촌이 우리를 만경대에 데려가려고 둘째 외삼촌(강용석)과 함께 봉화리로 찾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봉화리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때 만경대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집에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원들과 반일운동자들과의 련계를 지으면서 뒤수습을 하려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뒤처리를 깨끗이 해놓은 다음 이듬해 봄에야 우리를 데리고 만경대로 돌아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달구지를 가지고 봉화리에 와서 이사짐을 싣고 갔다.

그해 봄과 여름을 나는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몇밤 자면 아버지가 돌아오는가고 내가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곧 돌아오신다.≫면서 같은 대답만 하였다. 어머니는 어느날 나를 데리고 만경봉 그네터로 올라갔다. 나를 안고 그네에 걸터앉아 이런 말씀을 하였다.

≪증손아, 저앞에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너는 커서 꼭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어라.≫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후 어머니는 나도 모르게 감옥에 여러번 다녀왔다. 그렇지만 갔다와서도 감옥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번은 어머니가 칠골에 목화를 타러 간다면서 나를 데리고 성안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칠골외가에 들려 목화를 타달라고 맡겨놓고는 곧장 평양감옥으로 갔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를 떼여놓고 혼자 가라고 여러번 타일렀다. 철도 들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가다니 될말이냐, 저 어린것이 철창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놀라겠는가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였다.

나는 보통강나무다리를 건너서자 첫눈에 인차 감옥건물을 알아맞히였다. 감옥이 어떻게 생겼다고 대준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의 색다른 모양새와 주변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고 저것이 감옥이다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였다.

감옥건물은 그 외형만으로도 사람들의 혼을 뺄수 있으리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였다. 철문, 담장, 망루, 쇠살창은 물론, 파수병의 검은 복장과 눈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살기가 넘치고 독기가 풍기였다.

우리가 들어간 면회실은 해빛조차 잘 들지 않는 어둑컴컴한 방이였다. 그 방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하고 흐리터분하였다.

아버지는 그런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가와하면서 어머니더러 잘 데려왔다고 말씀하였다.

수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상해서 인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얼굴, 목, 손, 발 할 것없이 살이란 살은 온통 멍이 들고 상처가 나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몸을 해가지고서도 오히려 집안사람들을 걱정하였다. 어찌나 기상이 도고하고 늠름하였던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네가 그새 컸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라!≫

아버지는 간수가 있는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태연하게 말씀하였다. 음성도 이전날과 다름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큰소리로 ≪예, 아버지도 집에 빨리 돌아오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향해 간혹 집에 붓장사나 참빗장사들이 오면 잘 도와주라고 하였다. 혁명동지들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였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불굴의 모습에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날의 인상가운데서 또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면회실에서 리관린을 만난 것이다. 그는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다니면서 조선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경찰의 마수가 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리관린은 조선국민회원인 동창생 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봉건이 심하던 그때에 처녀로서 감옥에 그것도 사상범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감옥출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집도 못갈 세상이였다. 그런 때에 멋쟁이 신녀성이 사상범을 면회하러 왔기 때문에 간수들도 놀라서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리관린은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때 감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사변이였다. 나를 감옥에 데리고 간 어머니의 깊은 뜻도 리해되였다. 아버지의 몸에 생긴 상처는 나로 하여금 악마와도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상처에서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력사가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표상을 얻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일본군경들의 행패를 많이 당해보지 못하였다. 호구조사와 청결검열차로 만경대에 내려온 일본경찰들이 무슨 생트집을 하나 걸어가지고 시비질을 하던 끝에 우리 집 장지문을 채찍으로 찔러 다 찢어놓고 그 문짝을 가마우에 내동댕이쳐서 솥뚜겅을 깨던 광경은 보았지만 죄없는 사람들의 육신에 그처럼 심한 상처를 내는 것은 한번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 상처는 항일혁명투쟁 전기간 잠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면회에서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자욱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1918년 가을에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다. 큰삼촌이 할아버지와 함께 들 것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동네 사람들은 송산리에서 만경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였다. 매를 너무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된 아버지는 겨우 걸음을 옮기여 감옥문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로 치를 떨면서 아버지더러 어서 들것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전에야 제가 어떻게 원쑤놈들앞에서 들것에 들려가겠습니까. 놈들이 보란 듯이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하고는 흔연히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 돌아온후 아버지는 삼촌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나는 감옥에서 물이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세상에 제일 못된놈들이 일본놈들인데 그놈들을 그냥 놔둘수가 있느냐. 형록이나 형권이도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 죽어도 피값은 해야 한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장차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으면서도 책을 읽었다. 한동안은 눈병을 잘 고친다는 왕고모부 김승현네 집에서 보양을 하며 감옥에서 시작한 의학공부를 계속하였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좋은 의서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왔다. 원래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 왕고모부네 집에서 의술도 배우고 의서도 탐독하였다.

아버지가 교원이라는 표면상의 직업을 의사로 바꾸려고 결심한 것이 아마 감옥살이를 할 때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아버지는 몸이 미처 추서기도전에 평안북도일대에로 떠났다. 파괴된 조선국민회 조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라고 아버지를 고무해주었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였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일화

조국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1972년 7월 19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판문점을 방문하시였다. 그분께서는 판문점노대에서 쌍안경을 드시고 오랫동안 남녘땅을 부감하시였다. 잡초만 무성한 황페화된 땅,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예성강다리, 집 한채, 밭이랑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남녘하늘아래 신음하는 민중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들으시는듯 그분의 안색은 몹시도 흐려지시였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일군들에게 조용히 물으시였다.

≪여기서 서울이 몇리나 됩니까?≫

옆에 있던 한 일군이 140리가량 된다고 말씀올리자 그분께서는 ≪지척이구만..≫라고 하시며 숙연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빨리 통일해야 하겠습니다.≫

나직하나 무게있는 말씀이였다. 그분의 통일의지가 바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었다. 밤새워 수백리길을 달려오신 목적이 통일의지를 가다듬는데 있으신듯 그분의 안광은 결연한 광채를 뿜었다.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으로 그분을 우러렀다.

이날 판문점방문에 이어 개성시 자남산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학정밑에서 짓눌려 사는 남녘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남녘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안광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굳은 의지가 어려 있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통일의지는 백두산에서 개척되기 시작한 주체혁명을 완성하시려는 크나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였다.

그분께서는 이남의 혁명가들을 만나시어서도 이런 점에 대하여 피력하시었었다.

1972년 여름 어느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양강도 혜산에서 한 이남혁명가를 만나주시었다. 그분께서는 남녘민중을 모두 그러안으시는 심정으로 그를 굳게 포옹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영도자님을 몸가까이 뵈옵게 된 그의 감격은 컸다. 그는 통일광장의 단상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남녘겨레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는 그의 손이며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면서 자신께서도 어느 한순간도 남녘겨레를 잊은 적이 없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혁명가는 감격에 겨워 진정할 길이 없었다. 자꾸만 눈물이 나와 동지들과 남녘민중들의 절절한 심정을 죄다 아뢸 수 없어 안타까웠다. 영도자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그가 어려움을 잊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쓰시였다. 참으로 육친의 정 넘치는 담화였다.

그분께서는 그와 장시간 자리를 같이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그 가운데는 백두산과 그곳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도 있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이번에 혜산에 왔던 걸음에 백두산을 꼭 보고 가라고 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모든 산맥들은 백두산으로부터 뻗어내려온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남해 한라산도 바로 백두산의 줄기가 뻗어내려 솟은 조국의 남쪽산이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은 조선의 모든 지맥이 집중된 어머니산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귀중한 혁명전통이 형성된 혁명의 크나큰 품입니다.≫

그분께서는 산과 땅에 산맥과 지맥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혈맥이 있다고 하시면서 남녘인민들의 모든 혈맥, 남녘변혁운동의 혈통은 백두산에서 타오른 주체의 횃불아래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뻗어내렸다고 강조하시고 조선을 알자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며 조선에서 혁명을 하자면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집약하신 금언이였다. 그 혁명가는 이 말씀의 한마디한마디에 깃든 깊은 뜻을 되새기며 투지를 가다듬었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의지는 기어이 휴전선장벽을 허물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였다.

송시

이 길로 가자

최학순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가슴 가슴에
열정으로 타오르네 희망으로 빛뿌리네
광주로 부산으로 노도처럼 퍼져가는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이여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을수록
생 넘치는 민심의 광장에
너는 세웠구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통일이정표
6.15남북공동선언 금빛 폿말을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안다
암흑의 분단세월 너무도 길어
겨레의 고통이 너무도 깊어
못잊을 2000년 6월
평양의 하늘가에 봉화로 타오른 자주의 통일선언

이 선언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애국도 있어
이 선언을 지키는 길에 뜨거운 애족도 있어
누구에게나 소중한 통일의 선언

이 선언 배신하는 자 역적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고
이 선언 가로막는 자 매국노로
역사밖에 밀려나리니
아! 6.15선언
너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빛나는 이 선언앞에서
이북동포를 적으로 보는 주적론은 무어냐
통일의 발걸음 가로막아 나선 보안법은 또 무어냐
분단의 오물 온갖 잡동사니 짓뭉개버리며
이북의 공동사설 그 목소리에 발걸음 맞추자
통일의 이정표따라

이 길로 가자
김정일장군님 가르키시는 참다운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길로 힘차게 앞으로

흠모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

≪수령이 위대하면 당도, 나라도, 민족도 빛나며 미래도 휘황하다. 어느 나라, 어느 당, 어느 민족이건 과거도 귀중하지만 내일이 더욱 소중하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주체의 나라, 다시 말하여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조선은 미래가 창창하며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오직 승리만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가나정부상 디. 에스 보아뎅)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업을 영도하여 오시면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세계에는 그분처럼 위대한 민중적인 영도자, 최고사령관은 아직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고 조선민중의 주체위업과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미래는 휘황찬란한 것이다.≫(구 소련국방상 드미트리 야조브)

≪오늘 조선은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전형으로 되고 있다. 조선민중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다른 나라들에서 수십년이 걸려서 할 일을 불과 몇년사이에 해제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론의 천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 나라얀 만비 죽제)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의탁하고 마음 속 깊이 우러르며 따르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양심과 숭고한 사상감정은 5대륙 방방곡곡에서 태양만세의 환호성으로 열화같이 분출하고 있다. 정녕 **김정일**각하를 모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일**강성대국으로 만방에 이름떨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이태리국제연구소 총서기 쟝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사대매국노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뉴스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2월 1일

각계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사대매국노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행각했습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날아가서 체니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미의회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한미공조니 뭐니하며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적극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킬 것을 구걸했습니다. 이회창은 또 전략적 상호주의니 투명성과 검증이니 뭐니하며 이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심히 자극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은 이북이 변화된 것이 없다, 북의 전쟁무력을 해체시키고 그에 대처해야한다 뭐다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북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감축시킬 것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내뱉으면서 미상전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청탁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회창은 심지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등을 비난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행위도 아무 거리낌없이 감행했습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자행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친미사대주의적 망동은 이거야말로 더러운 권력야욕을 위해서는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또다시 드러내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결국 동족사이의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른바 반테러전이라는 구실아래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려고 책

동하면서 동족인 이북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때에 이회창이 제 상전들을 찾아가 이른바 한미공조를 떠들고 동족을 모해하려는 짓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은 애비가 저지른 친일매국행위와 자신이 저지른 법관시절의 범죄행위, 두 아들의 병역기피문제, 6.15공동선언반대 등으로 인해 각계에서 반이회창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다가 한나라당내부에서 대선후보경선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심화되자 미국으로 날아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상전들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천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국민들이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친미사대주의적인 반민족반통일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이회창이 자신의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겨레앞에 사죄하고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는 이회창일당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1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관계저작을 수록한 팜플렛 출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부산에서 활약하는 ≪조국통일선봉대≫가 그분의 통일관계저작들을 수록한 팜플렛을 출간했습니다.

총 30여쪽으로 된 ≪위인의 통일경륜≫이라는 팜플렛 첫장에는 백두산천지에 서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관계 저작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지금 각계 애국민중속에 보급되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운명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심과 불타는 통일의지를 전하며 널리 탐독되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체결기도 반대 성명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이 한미사이의 투자협정체결기도를 반대해 1월 2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당국이 부시의 행각을 계기로 연초에 미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려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그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투자협정은 미국자본이 이남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술이전과 노동력고용의무가 없으며 투자를 통한 이익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끌어들이면 기술도 이전하고 고용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투자협정을 통해 단기투기를 정당한 투자로 보장해주려는 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굴욕적인 태도에 분기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한국에 국제통화기금사태를 몰아온 1997년말의 금융위기나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장기투기자본의 고삐풀린 이동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우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기간산업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경제를 상시적인 불안에 내맡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미 이 협정에 대한 협상과정에 미국이 한국의 4대공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주식기본제한조치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외자를 끌어들일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내주겠다는 당국의 굴욕적인 태도로 일부 공기업들에서 외국인 주식지분이 절반이상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경제의 해외존속이 더욱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투자협정체계를 통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당국에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한반도에서 문화재 10만점 약탈

일본이 19세기말부터 2차대전 패망때까지 한반도 곳곳에서 최소한 10만점의 문화재를 약탈해갔으나 반환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미군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또 2차대전 종전직후 일본점령군 사령관이였던 맥아더가 약탈문화재반환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약탈행위와 군사행동과 전쟁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파괴된 문화재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떠든 맥아더의 주장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흉악한 침략자들이며 그들의 이같은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29일~31일

지금 이북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내외에서 항의와 규탄이 물끓듯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엔 ≪무엇을 노린 특수미사일부대인가≫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라는 것을 창설했는데 미국은 이 부대창설목적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강도적 논리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사실 미사일위협으로 말한다면 이북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건 세계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미국잡지 ≪뉴스 위크≫가 최근 발표한데 따르면 ≪지금 미국본토에는 세계 인류를 수십번 죽이고도 남을 약 2만개의 각종 핵 및 미사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핵 및 미사일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한국에 1천여개의 핵무기와 미사일, 핵적재용 ≪에프16≫전투폭격기를 배비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 도처에 핵저장고들을 신설하고 핵탄저장과 장비를 맡은 부대까지 끌어들여 임의의 순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만반의 준비까지 갖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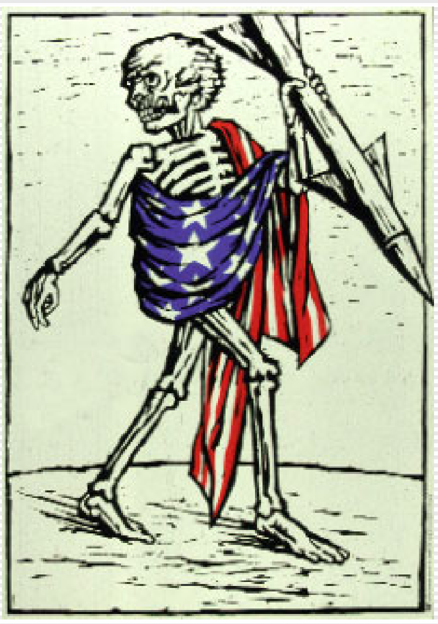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 땅에서 국군과 함께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거기에 핵항공모함들과 핵공격용 군사장비들, 핵배낭을 휴대한 특수부대들까지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 오늘 이 땅은 극동 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됐고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이 땅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 있잖아요.

김현규 : 네, 옳습니다. 미국은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미사일들의 주요장비들에 대한 성능개량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해에 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요격레이다를 새로 이 땅에 끌어들이려고 할뿐 아니라 국군에 300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다연장전술지대지미사일 111기를 2004년까지 넘겨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에서 미사일위협이 이북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회자 : 그러면 미국이 왜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셈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것은 한국을 저들의 세계제패를 위해 실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은 얼마전 제손으로 서명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헌신짝처럼 차던지고 세계가 반대배격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사일방어체제를 세계의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반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아시아대륙의 관문이며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과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결국 미국이 새로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건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코에 걸고 이북침공을 위한 전력을 더욱 증강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김현규 :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즈≫가 ≪미사일방어체계가 이름처럼 방어용이 아니라 사실은 미사일공격의 자유를 위한 공개적인 개념위에서 출발한 무기체제≫ 이렇게 폭로한 것만 봐도 잘 알수 있는데요.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것도 한국을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고 핵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데 있습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과 인류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이 땅을 미사일방어체제의 시험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이 제아무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통일을 방해해도 우리 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1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집회
공기업노조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파업을 선언한 서울지역 6개 공기업노조는 1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2월초 연대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6개 공기업노조의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해 임금인상을 6%이내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달초에 연대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집회가 끝난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12.5%임금인상을 요구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12.5%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12.5%로 정했고 다만 산업별, 직종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11%~14%의 인상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합원생활실태조사결과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 3.5인의 한달표준 생계비가 285만4000원에 이르지만 조합원 평균임금은 182만7000원에 그쳐 현재 표준생계비대비 임금비중의 69%선이라면서 임금비중을 72%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관계자는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려면 큰폭의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표준생계비 72% 수준확보를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요구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주적》론은 반북대결론

반일천 / 구국전선 주체 91년 2월 1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이 땅의 반통일세력과 미국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진군을 멈춰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 김동신은 작년말에 있은 국회답변이라는데서 《국방부로서는 《주적》개념이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올해도 《국방백서》에서 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쪼아박을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군부호전세력들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대화상대방인 이북을 계속 《주적》으로 규정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이북을 모해압살할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군부호전세력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진 사태에 빙자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침략무력을 증강하며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어 남북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한 홍순영수석대표라는 사람의 입에서까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조건에서 《주적》관념은 불가피하다》는 망발이 튀어나왔다.

동족에게 《주적》감투를 씌우는 것이야말로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낡은 시대의 대결론이며 냉전의 유물인 《주적》론을 아직도 떠들어대는 것은 동족이 내미는 화해의 손에 총구를 내대는 것이나 다름없는 용납못할 도발이다. 대화의 마당에서까지 《주적》망발이 흘러나오는 정도이니 대화가 어떻게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동족간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민족간의 관계, 적대적 관계로 보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이 남과 북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적개념》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을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지금은 온 민족이 통일의 일념으로 살며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다.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을 하자고 하는 오늘에 와서까지 한국의 반통일세력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상대방을 《주적》으로 대한다면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런 행동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

갈라져 살 수 없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질과 단결력을 외면하고 낡은 대결관념에 물젖어 반북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반통일분자들만이 《주적》나발을 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주적》론자들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전적인 부시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군사적 압살의 첫번째 대상으로 점찍어 놓았다. 미국은 이북에 의도적인 도발을 걸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북에 생트집을 걸다 못해 이북을 계속 《테러》와 연결시키고 나중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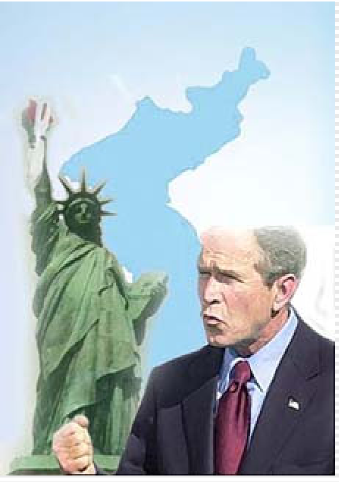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언론을 사주하여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테러응징전쟁목표가 이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호전적인 여론을 내돌렸다.

이외에도 미국은 《9.11사건》을 계기로 그 무슨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이 땅에 새로운 전투비행단을 추가배치하고 이북을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어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인 《주적》론에 이 땅의 호전적인 군부와 우익보수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예의를 모르면 사실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호전적인 군부와 우익보수세력들의 행위는 결국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민족적 양심도, 인륜도덕도 다 줴버린 무뢰한의 망동으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

현실은 《주적》론을 부르짖으며 대결을 고취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자주통일위업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없고 이미 이룩한 성과도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동족을 《주적》으로 보며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극우반통일세력에게 경고한다

진정철 / 구국전선 주체 91년 2월 1일

지금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통일구호를 높이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이 높아지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때에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익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집안일도 아닌 《9.11사건》을 걸고 이북의 동향을 운운하면서 동족을 반대해 취한 《비상경계조치》를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북을 반대하는 각종 전쟁연습을 계속 벌여놓고 외부로부터 각종 침략전쟁장비를 계속 끌어 들이며 외세와의 공조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이 뿐이 아니라 이북에 대한 《주적》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국보법》에 걸어 통일애국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극우 반통일보수세력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주적》론만 보아도 동족인 이북을 주되는 적으로, 대결대상으로 보는 반민족, 반통일적 논리이다.

원래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주적》론은 민족자주통일의 대하가 거세차게 흐르는 현실적 요구에 걸맞게 철회돼야 했었다.

그런데도 극우보수세력은 《주적》론을 철회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행독재자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주적》론을 떠들어대고 있다.

이런 우익보수세력에게 어떻게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생각이 있으며 화해와 협력의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고 민족자주통일을 안아올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지금 7천만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들고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는 때에 한줌도 못되는 극우반통일보수세력만이 이에 도전해 나서고 있다.

그들이 반통일책동에 광분해 나서는 그 저의는 남과 북사이에 불화와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도록 하여 6.15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분열을 영구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다.

이같은 매국노들은 마땅히 청산되여야 한다.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은 우리 민족의 일치한 지향이 반영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범죄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우리 민중은 극우반통일보수세력에게 경고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 반영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외면하고 외세에 빌붙어 반통일책동을 일삼는 매국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1월 30일

아리랑대공연을 헐뜯는 ≪조선일보≫를 규탄

조선학생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우리의 ≪아리랑≫대공연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1일에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평양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민족뿐만아니라 온 세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앞을 다투어 그 관람을 희망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때에 남조선의 ≪조선일보≫라는것이 감히 입에 담지못할 망발로 ≪아리랑≫대공연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우리의 ≪아리랑≫공연과 관련하여 그 무슨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이니 하는 따위의 갖은 악담을 다 퍼부었다.

이것은 공연을 성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이 공연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를 악랄하게 외곡하고 부정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학생들과 모든 학부형들을 비롯한 인민들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끓어 오르는 격분을 표시하면서 단호히 규탄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내외가 일치하게 인정하는바와 같이 이미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완벽한 기교로 하여 인류문화의 보물로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결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악질적인 비방중상을 일삼으면서 훼방질을 하고 있는것은 그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놓을뿐이다.

≪조선일보≫는 저들이 저지른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온 남조선의 ≪조선일보≫가 이번에 우리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까지 헐뜯고 중상해 나선 조건에서 그자들을 ≪반통일반역집단≫으로 등록하고 기어이 사죄를 받아 내고야 말것이며 그 명줄이 끊어 지고 존재를 마칠 때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강력히 벌려 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기회에 우리는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과 학부형들을 비롯한 각계층 광범한 인민들이 반통일반역집단인 ≪조선일보≫를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리회창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평통서기국대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대변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에 가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1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얼마전 미국을 찾아간 리회창이 상전들앞에서 ≪북은 변한것이 없다≫느니, 그 누구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통일후에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필요≫하다느니 하고 떠들다 못해 지어 자기가 ≪집권≫하면 우리에게 ≪비무장지대에서의 북의 병력후퇴배치, 재래식무기감축≫ 등을 요구할것이라는 망발까지 늘어 놓은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는 리회창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두목들과 만나 대북강경책을 부추기는 망발을 토한것은 누가 보아도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온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리회창이야말로 더러운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으면 동족사이에 전쟁밖에 있을것이 없다.

우리는 리회창과 같은 사대매국적인 반통일분자가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그와 상종하지도 않을것이다.

리회창의 미국행각시 발언한 망언을 규탄

조선중앙통신 론평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을 행각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망언을 꺼리낌없이 늘어 놓아 겨레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리회창은 6.15북남공동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검증≫을 운운하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과 남사이의 협력사업마저 시비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쟁탈과 일신의 영달만을 노린 반통일, 사대매국행위이다. 리회창의 민족분렬주의자로서의 더러운 정체는 이번 미국행각의 정치적배경과 목적을 통하여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반테로전쟁≫을 계기로 기고만장하여 자주적으로 나가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부쉬의 남조선행각에 한발 앞서 상전을 찾아간 리회창이 우리에 대한 ≪검증≫과 ≪상용무력축감≫에 대하여 떠들며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애걸한것은 미강경보수세력의 환심을 얻어 다음기 정치권력을 차지해 보려는 식민지주구의 추악한 권력욕을 그대로 드러 내 보인것으로 된다. 이자야말로 더러운 정권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외세에 아부하여 개질을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이다.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결국 동족사이의 전쟁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민족의 리익과 지향, 대세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능력도 갖추지 못한 비인간적정치시정배인 리회창이 6.15북남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해 나선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의 온 민족이 세계와 력사앞에 확약한 통일의 리정표이다.이를 반대한다는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전면부정하는것이나 다름없는 반역행위로 된다.

우리는 리회창과 같은 사대매국적인 반통일분자가 자기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한 그와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에 자주통일, 평화통일이 있다

민주조선

오늘호 ≪민주조선≫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대단결에 자주통일, 평화통일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면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조선민족이 대단결하지 못하면 외세에 통일문제해결에 끼여 들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된다.

무력을 행사하는 대결의 방법으로는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수 없으며 오히려 민족내부에 지울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뿐이다.

조선민족이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단일민족으로서의 고유한 본래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로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민족이 대단결하는 여기에 평화통일이 있다.

≪한나라당≫ 총재의 망언을 규탄

≪전국련합≫

보도에 의하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련합≫(전국련합) 대변인은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의 미국행각과정에서의 망언과 관련하여 26일 ≪리회창은 미국의 노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회창이 미국을 행각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분렬을 획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늘어 놓은것은 명백한 반민족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특히 부쉬의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리회창이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북에 대한 ≪검증≫에 대해 떠벌인것은 외세를 끌어 들여 동족을 적대시하는 전형적인 사대매국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리회창이 미국강경파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이 되여 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것은 ≪권력을 위해서는 민족의 리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의 발로≫라고 지적하였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2)

로동신문사설 주체 91년 1월 14일

선군령도의 길에 새겨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쉬임없이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 농촌들을 찾으시여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으며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불멸의 자욱자욱을 새겨 놓으시였다.준엄한 시련을 뚫고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전진하여 온 우리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결정체이다.우리는 그처럼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몰라보게 변모된 우리 조국의 현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우에 새겨 진 불면불휴의 로고와 무비의 헌신성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기며 장군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는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국을 뚫고 승리만을 아로새겨 온 강철의 령장의 영웅서사시이며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언제나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큰 변혁을 이룩하여 온 기적과 위훈의 력사이다.

우리는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에 비껴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와 혁명적인 사업전개방식, 투쟁본때를 따라 배워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변혁을 일으켜야 한다.창조와 건설을 하여도 **김정일**동지식대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해나가며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닥쳐도 **김정일**장군님의 담대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야 한다.우리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 온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는 정력적인 투사, 대담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빛내여 나가는데서 제1기수는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가장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인민군군인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일당백의 강군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인민군대에서는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에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체득하는것은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는데 있다.위대한 선군기치높이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조국을 경제분야에서도 강국의 위력을 당당히 떨치는 무적필승의 나라로 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뜻 깊은 올해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 진 정책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경제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새해 첫 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새로운 경제적앙양에로 이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누구나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과업관철에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라남의 봉화따라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있게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누구나 위대한 선군혁명실록을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삼고 거기에서 신심도 얻고 방법론도 찾아 내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 같은 숭배심이 온 나라에 꽉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끼르기즈스딴에서 로작발행식 진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끼르기즈공화국 대통령행정부산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월 28일 끼르기즈스딴의 수도 비슈께크에서 진행되였다.

끼르기즈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을 자기나라 민족어로 출판하여 발행하는것은 그이의 로작을 연구보급하며 2.16을 성대히 맞이하려는 끼르기즈스딴인민들과 공산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매우 뜻 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시며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이 끼르기즈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조직들, 끼르기즈스딴공산주의자당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여러 출판보도기관과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에 배포되였다.

고통련위원장들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고통련위원장들이 1월 24일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각각 발표하였다.

우즈베끼스딴고통련 백영진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호소문에 지적된 3대호소와 3대제의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특히 올해에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해 나갈것이다.

원동고통련 권천식위원장은 호소문에 밝혀 져 있는대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원동지역 동포들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규탄 여러 나라 인사

여러 나라 인사들이 조선에서의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규탄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겨울 일시적강점지역들에서 패주하면서 세균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1952년 1월부터는 각종 전염병균들을 보균시킨 곤충들을 공화국북반부전 지역에 800여회에 걸쳐 대량 산포하여 수 많은 조선인민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렐요는 담화에서 미제의 이러한 만행은 당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과 국제과학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국제조사단들에 의하여 현지에서 객관적으로 확증되고 세균무기산포에 직접 가담했던 미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되는 지금까지 저들이 감행한 야만적인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인류를 수십차례나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량의 각종 생화학무기를 저축해 놓고 조선인민과 인류의 머리우에 또다시 참화를 들씌우려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헬무트 하이드웨게르는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세균전은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대미문의 살인행위로서 당시 미군 상층부의 명령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감행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에서 감행한 생화학전만행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조선인민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남조선과 자국에 저축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들을 즉시 철폐할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당의 영도체계의 확립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강좌 265회
학사 김시남선생 / 주체 91년 1월 31일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주체의 혁명이론이 밝힌 당의 영도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당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향도적 역량인 것만큼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영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인 주체68(1979)년 4월 28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작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철의 원리로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작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써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 하시어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의 혁명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상이론의 천재적인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 문제인 당의 영도체계확립에 대해서 철의 원리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이 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만 달음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을 향해서 더 빨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위대한 인민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고 참다운 조국이 있을 때, 민족도 빛나고 개인의 운명도 영예도 빛나는 것이다.≫

라는 고귀한 명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참다운 사회주의 조국에서 살고 있기에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음을 순간순간 느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당안에 혁명적 기풍과 규율을 세우는 것이며, 둘째로는 각급 당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넷째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안에 혁명적 기풍과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안에 혁명적 기풍과 규율을 세운다는 것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기풍과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당안에 혁명적 기풍과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의 조직적 의사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입니다. 당의 결정과 지시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당의 영도는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해서 실현되며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목적도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습니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당의 영도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 것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규율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규율입니다. 규율은 당의 생명이며 그 전투력과 영도력의 원천입니다. 당안에 강철같은 규율을 세워야 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전위부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당안에 강한 규율을 세워야 당이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전체 인민을 수령이 제시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우자면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어떤 신념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전당에 혁명적 규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우자면 다음으로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조직에 집중시키고 토의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각급 당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급 당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에서 모든 조직과 기관 단체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하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 조직관점을 바로 가지고 당위원회에 의거해서 사업하도록 하는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활동하는 해당단위의 지도기관입니다. 당은 각급 당위원회를 통해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합니다.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해야 우선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통일적 지도를 통해서 온 사회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각급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또한 그 단위의 모든 사업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조직집행하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해당조직의 주인으로 되어 활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정치적 지도의 통일성과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실태와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요해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아래에 **시키는 것은 노동계급당의 지도원칙이며 사업질서입니다. 상급당 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지도에 맞게 사업해 나갈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끝으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당위원회가 당의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을 당위원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양시켜 집행하는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 활동에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집체적 힘의 의거하는 혁명적 지도방법입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우선 대중의 집체적 의사와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밑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지도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 전횡을 없애고 대중의 창발성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체의 영도방법에서 혁명적 영도체계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해명되고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 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계기로 사회각계각층에서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는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 방한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학생, 빈민, 청년, 사회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이 모여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한 규탄과 방한 반대의 의지를 모았다. 이날 집회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발여론이 높은 가운데 진행된 탓인지 시종일관 미국에 대한 규탄의 분위기로 뜨거웠다.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자통협 집행위원장은 ≪최근 부시가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짓에 다름없다≫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은 민족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도 ≪우리 노동자, 아들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김대중이다. 하지만 김대중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부시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시의 방문을 온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대우빌딩 1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판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전병덕 판매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대우자동차를 GM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라며 대우차 해외매각과 미국의 경제침탈을 규탄했다.

또, 전병덕 위원장은 ≪부시가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나갈 때는 제 발로 걸어나가지 못할 것이다≫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여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집회는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김종철 준비위원장이 미국의 무기강매 반대와 미군기지 철수 촉구의 발언을,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이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막아내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미국의 확전 기도와 무기강매 중단, 북-미 관계 정상화, 지엠(GM)의 부당해고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오후 4시경 마무리되었다.

한편, 주최측은 앞으로 △부시방한 반대 국내외 공동기자회견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 부시방한반대 1인시위 △각계인사 시국선언 및 행진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시가 방한하는 19일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성남 공항부터 부시가 떠나는 날까지 ≪그림자 투쟁≫을 전개하고 20일에는 전국 집중으로 수만명의 대규모 부시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부시의 방한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2/02

부시방한반대 청년학생 공동투쟁기획회의 제안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2월 19~21일 부시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의지가 결집되고 있으며 새내기배움터 등 객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제 학생단체들이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부시 방한을 계기로 청년학생 공동투쟁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청년학생의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의지를 한데 모으고 공동 투쟁을 모색하는 자리를 제안 드립니다.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 바랍니다.

≪부시 방한 반대 청년학생 공동투쟁 기획회의≫
일시 : 2002년 2월 3일(일요일) 저녁 8시
장소 :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실무회담

2002 설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실무회담에서 합의했다.

≪2002 설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의 관계자에 의하면 남측 대표단이 2일 오후 2시경 북경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해 왔으며 개최장소는 ≪금강산이 될 것≫이라고 준비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실무대표단은 북경에 체류하고 있으며 내일 오전 11시 50분(현지시간) 비행기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준비위 관계자는 대표단이 입국하는 대로 논의를 거쳐,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세실 레스토랑에서 실무회담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측 대표단 5명은 지난달 29일부터 평양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갖고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부시의 강경 발언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실무회담에 모아지는 관심이 적지않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2/02

시민사회단체 부시규탄 성명 잇따라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민족회의(상임의장 배다지)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민족회의는 ≪부시정부에 대한 규탄과 자극적인 발언 중단 촉구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의 자주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 졌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KYC(한국청년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게 대화 파트너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긴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통일연대는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위협 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농도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발언을 규탄하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상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까지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미국은 악의 전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밖에도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상임대표 박진석 목사),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반미여성회(준), 실천연대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높이는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2일 오후 반미결의대회를 개최해 부시 방한을 저지 투쟁을 결의한다. 대학생들도 부시 방한에 맞춰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시 방한을 앞두고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 외무성도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2/02

부시의 전쟁망언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2002년 1월 31일

1.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은 29일 밤 9시 (한국시간 30일 ,오전 11시 15분)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자신의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대통령이 악의 축 (axis of evil)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계2차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일본 동맹을 일컬어 지칭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2. 2002년을 ≪전쟁의 해≫라고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부시가 이제 이북-이란-이라크를 향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향해서 미국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는 취임이후 이북에 대해서 ≪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래식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또한 남쪽의 김대중정부에게는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선언을 하지 말고 이북에대한 전력지원을 하지 말것 등을 강요하면서 남북대화를 훼방하고 이북에 대해선 재래식무기를 감축하라 하면서 10조원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무기를 강매하려하고 있다.

3. 1994년 6월 미국에 의해 촉발될 뻔했던 전쟁망령이 9.11테러이후 급격히 군국주의화 해가고 있는 미국의 부시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이북과 1994년 10월에 맺은 북미기본합의문을 그동안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 이북은 자신들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흑연감속로에 의한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포기하고 미국이 약속한 2003년 까지의 1000만 키로와트의 경수로제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경수로 공사는 ≪기초굴착정도≫에 머물러 있고 2003년 완성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작금 이북동포들의 전력난은 심각함을 넘어서서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평양의 그 많은 고층아파트들의 엘이베어터는 그대로 서 있고 2-30층을 걸어서 다니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또한 이북에 대한 중유제공약속도,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있다.

부시등장후 오히려 지하시설파괴용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뿐인가 전임대통령인 클린턴과 이북의 조명록차수가 백악관에서 합의한 북미합의문도 부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

5. 우리는 이북이 우리와 같은 동포라 해서 이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북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북은 지금 전쟁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북은 9.11테러이후 ≪테러재정지원억제국제협약≫ ≪인질반대국제협약≫ 등 모든 테러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공격빌미를 사전에 차단한 바가 있다. 미국은 1990년대 10년동안 네차례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려 했던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이북과 타결한 각종 합의사항을 그동안 주동적으로 파기해 온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는 2월 방한을 앞두고 지금 우리 7천만 민중에게 전쟁협박을 가하고 있다. 4조1천억에 해당하는 차세대전투기를 우리에게 강매하려 하고있다. 자신의 아버지부시가 자문역으로 있는 보잉사의 낡아빠진 전투기를 말이다. 부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200억달러 (우리나라 예산의20%, 우리 국방비의 1.6배)를 요구하고 있다.

6.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저지해 내야 한다.

7.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북에 대해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90년대에 그렇게 하려했다. 작전지휘권을 당장, 즉시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8. 사우디의 왕세자는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컬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하면서 ≪철수≫ 를 요구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빛으로 물들이려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는 쫒아내야 한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금수강산은 신석기시대로 전변되어 버릴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를 사수하자 !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견해 (2)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 주체 91(2002)년 1월 25일

≪...동지는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에는 세 개의 전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북남)통일전선, 남측에서의 통일전선, 북측에서의 통일전선이 그것입니다.

그는 ≪북의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을 밀고 나가는 북의 혁명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 오늘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전선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역량이 사회주의혁명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전선수준을 벗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준으로 상승·발전하게 됩니다. 통일전선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역량의 발전수준에서 볼 때 그 지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오늘 북측에서는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북측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설했던 것은, 그 이론이 성립되었던 당대의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북측의 혁명발전수준은 오늘의 높은 발전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학습하는 주체적 태도는 그 이론을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로 해설하는 것입니다.≫(최성원,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2001년 11월 6일)

필자는 최성원동지의 견해에 동의하며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인전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이론문제≫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이론문제≫는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통일전선이 단순한 통일전선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차원으로 상승발전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견해가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개념 차이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북의 경우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간의 통일전선을 현실변화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그리고 인전대에 대한 견해가 보완정립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에 대한 일부단위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응당한 이론적 해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2001년 12월 1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현재 제기된 주체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관계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된다.

→

광고

≪월간백서≫를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 주체 91(2002)년 2월 1일

통일여명 편집국은 지난 기간 민족민주대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백서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간한 백서들은 ≪통일전선≫, ≪6.15공동선언≫, ≪조선노동당≫ 등 주제별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주제별 백서발간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앞으로 월간지 형태의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월간백서≫는 월간 ≪통일여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은 ≪6.15백서≫, ≪반미백서≫, ≪진보정당백서≫, ≪학생운동백서≫ 등으로 나누어 발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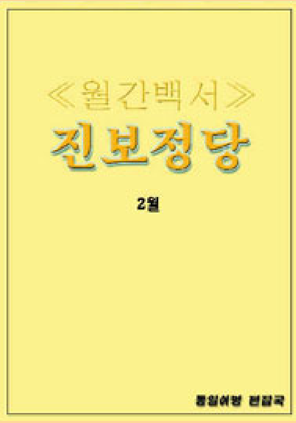
월간백서는 제목에 나와있듯이 6.15공동선언실천과 반미투쟁, 진보정당활동, 학생운동에 대한 지난 한달동안의 중요자료를 모두 담아놓은 말그대로 백서입니다.

월간백서는 가장 효율적인 검색기준의 하나인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색깔과 굵기를 달리 하였습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보기 쉽게 편집해 놓은 것은 물론입니다.

월간백서는 동지들이 지난 한달간의 투쟁흐름을 조망하는 한편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동지들의 지난 활동총화와 향후 투쟁설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백서발간사업은 정세와 동지들의 요구에 따라 주제별로도 발간되며 월간백서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동지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통일여명의 선전투쟁은 계속됩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공고발전하여 온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오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역량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참다운 면모입니다.≫

전위당의 문헌을 학습하고 최성원동지의 논문을 참고하는데서 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몇가지내용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문헌은 주권전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주권전취이자 곧 사회주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처럼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도 노동계급의 주권전취로 된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변혁운동을 영도하는 전위당은 애국민중의 전위대일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다. 노동계급의 주권전취가 기준으로 되는 이유는 당문헌에 밝혀져 있듯이 변혁역량이 반변혁역량을 압도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며 통일전선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처럼 노동계급이 주권을 전취하였다고 사회가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이내 발전하지는 않는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해는 1967년이다. 당내 유일사상체계확립조차 1958년 사회주의혁명 이후 9년이 걸렸던 것이다. 당문헌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이란 개념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주권전취 이후 단계≫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후의 변혁노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권전취 이후 단계≫에는 사회혁명역량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주의건설단계가 내포된다.

둘째, 우당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관계란 수령과 당과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연결된 관계이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주체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 영원한 스승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 태양, 통일의 구성, 현세의 한울림으로 높이 추앙하고 있다. 우당들의 주석님과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경하의 마음은 절대적이다.

주석님, 장군님과 우당들과의 사이에도 일심단결이 이룩되어 있는 것이다. 주석님, 장군님과 우당들간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단순히 통일전선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주석님, 장군님과 우당들이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일심단결의 관계가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세째, 조선노동당과 우당간의 관계는 통일전선적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현재 이북에는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서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조선노동당과 우당은 영도권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다. 조선노동당은 이북을 유일적으로 영도하는 영도적 정치조직이다.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지도사상과 사회계급적 기초이다. 우당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북사회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인정한다. 이북사회는 오늘 우당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실천하고 있다. 우당들은 또한 조선노동당의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북사회는 오늘 우당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사회주의완전승리라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과 온사회의 노동계급화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당들의 입장은 우당들의 성격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과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당간의 관계를 단순히 통일전선적 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네째, 국가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라는 점이다. 국가정권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란 수령, 당, 인전대, 대중의 통일적 체계를 말한다. 국가정권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수령을 핵으로 하는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에 속한다. 인전대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북의 국가정권은 해방직후 조선노동당과 우당 간의 통일전선에 바탕하여 수립되었다. 조선노동당과 우당 간의 통일전선은 여러 단계의 주체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고발전되었다.

오늘 주체사회주의사회의 국가정권은 본질상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이자 곧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인전대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구성부분인 만큼 인전대 수준에 이른 북의 조선노동당과 우당 간의 관계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관계인 것이다.

(끝)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